



사진작가 '강봉규-나무와 사람' 전 광주시립미술관 27일~4월 21일

빛바랜 기억... 빛나는 기록

'나무'와 '고향', '사람'은 많이 닮았다. 우직하게 고향마을을 지키고 서 있는 나무는 고향마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또 켜켜이 쌓인 긴 세월을 여실히 보듬고 있는 나무에서 우리네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살았던 모습, 어머니의 포근함이 담겨 있기 때문인가 보다.

우리네 고향 풍경이 담긴 원로 사진작가 강

반 백 년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 40여 년 동안 가장 한국적인 것들을 토속적인 색감으로 담아왔다. 때문에 그의 사진들은 단순한 추상적 예술에서 벗어나 기록성과 예술성이 결합돼 있다.

10여 년 전부터는 '나무'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의 작품 속 나무들은 멋들어진 외형을 자랑하지도 않는다. 시골 동네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기록하면서 사람과 나무의 동일성을 연구하게 됐고, 나무를 통해 고향을 볼 수 있었다"며 "나무는 우리들의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벗이자 가족"이라고 말했다.

회관에서 태어난 강씨는 1959~1980년 광주일보 사진부장, 월간잡지 '사람 사는 이야기' 편



집장, 광주비엔날레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 맞춰 일본 5개 도시 순회 전시를 하는 등 수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대한민국의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현재는 담양 '명지원'에서 명지미술관을 운영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 인생 50년 회고... 자연·전통 소재 120점 사라져 가는 풍경 진솔한 사진 언어로 담아내

봉규(79)씨의 사진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나무를 사람이라고 말한다.

강씨의 50년 사진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광주시립미술관이 27일~4월 21일 2013 원로작가초대전 '강봉규-나무와 사람'을 통해서다.

강씨는 지난 50년 이상 역사가 켜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1960년 광주일보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부터 평생 사진과 함께 살아온 그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 자연을 기록하고 증언해 온 작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 속 나무들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무와 사람'이라는 타이틀 아래 '나무는 사람이다' '멈추지 않는 시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작품 120점이 전시된다.

'사라져 가는 풍경'과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진솔한 리얼리티가 응축이라 할 수 있는 '나무와 사람'을 통해 현대인들이 잊고 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일깨웠으면 한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강씨는 "40년 동안 한국의 정신, 삶, 문화 등

광주 청년 미술인들 '생활고'

56% 월 50만원 이하 벌어들여...37%는 수입 없어

광주지역 청년미술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미술문화연구소(대표 조인호)가 광주 청년미술인의 창작여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 56.6%가 월 5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작업과 생

활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는 아예 수입이 없었다.

지역 청년작가 절반 이상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1인가구 최저생계비 55만3000원(2012년 기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작품활동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출도 월 평균 86만원 이하인 작가들이 54.3%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85만400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문광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 66.5%였는데 비해 광주 미술인은 78.3%에 달해 지역 미술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심각함을 보여줬다.

작품판매로 수입을 얻는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직장생활이나 자영업 32.7%, 가족도움 3.

1%, 아르바이트가 46.9%로 전업작가로 창작에 전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작품판매도 전시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작품제작과 전시회에 드는 비용이 많아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광주미술문화연구소 관계자는 "미술계 현실 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방안, 민간부문의 실질적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문화 소외이웃에 23억원

문화재단, 문화바우처 사업...전남 32억 투입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이용권 사업(문화바우처사업)에 광주 23억원, 전남에 31억5300만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3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광주지역 을 사업 예산은 복권기금 16억8200만원, 지방비 6억3661만원 등 총 23억1861만원 규모로, 문화이용권 카드는 지난해보다 7555매 늘어난 3만7135매로 확대됐다. 전남은 지난해에 비해 차상위계층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업 예산도 지난해 32억8900만원보다 1억3600만원 줄었다.

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당 연 5만원 1장, 청소년

(1994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의 경우 본인외 수급자·차상위에 해당되면 1년 1인 1장 5만원 한도로 추가 발급된다. 가구 당 최대 7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문화바우처는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및 음반, 도서를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CGV, 메가박스, 티켓1매당 2500원, 온라인 음악사이트 Mnet, KT뮤직은 정상가 대비 20~25% 할인된다.

또 카드 소지자는 공연장·공연단체가 공연당 객석 5% 이내에서 기부한 무료티켓 또는 미판매 예산 좌석의 50~80%의 할인가격에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게 부여하는 나눔티켓을 통해 무료 혹은 할인티켓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장성 출신 민중미술가 여운 화백 별세

장성 출신 민중미술가 여운(사진) 전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지난 25일 오후 6시2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고인은 홍익대학교 및 동 대학원 석사학위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한양대 일러스트레이션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정년 퇴임했다.

고인은 1980년대부터 민중미술가로 활동하며 '마곡동 봄바', '월원 비무장지대 가는 길' 등의 대표작을 남겼다. 1985년에는 오윤, 신화철 씨 등과 민족미술인협회를 창립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회장을 지냈고 광주비엔날레 홍보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의정 여사와 딸 소연, 선주 씨, 사위 송영호(한국수출입은행 차장)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 30분, 장지 경기 파주시 약현성당 묘역. 문의 02-2072-2034. /연합뉴스



주말엔 '나눔 공연' 보러 오세요

남구 광주공원·북구 우산공원 시민예술가들 매주 상설 공연

광주문화재단과 남구, 북구, 시민 예술가들이 함께 진행하는 '재능나눔 상설공연'이 본격화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창립 첫해인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문화나무예술단' 사업의 일환으로 매주 토요일 낮 12시 남구 광주공원과 오후 2시 30분 북구 우산공원에서 '재능나눔 상설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재능나눔 상설공연은 5개 자치구 거점을 중심으로 광주 전역에 상설

및 거리 공연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운영된다."

2008년부터 '소리모아 봉사단' 등 민간 차원의 자생적인 활동에 자치구가 장소를 제공하고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의 '문화나무예술단'이 힘을 더하면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매주 토요일 공연에 앞서 수요일까지 문화예술 관련 재능을 나눌 출연자 및 공연팀을 모집한다. 자세한 정보는 '페스티벌 오! 광주' 공식 홈페이지(http://festival.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70-746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